은성수發 연쇄인사… 輸銀 새 수장에 유광열·최희남 거론

〈금융위원장〉

금융권 인사 본격화

허인 국민은행장, 연임 무난할 듯
이대훈 농협은행장, 3연임 도전
김도진 기업은행장, 연임 불투명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 허인 KB국민은행장 / 이대훈 NH농협은행장 /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공석이 된 수출입은행장 자리를 시작으로 금융권 인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차기 수출입은행장은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임기만료가 다가오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이대훈 NH농협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등에 대해서도 연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장은 전임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취임으로 공식적으로 공석이 됐고, 허인 국민은행장은 오는 11월20일로 임기가 끝난다. 이대훈 농협은행장과 김도진 기업은행장의 임기만료는 12월 말께다.

당장 금융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수출입은행이다.

전임 수장들이 연달아 금융위원장으로 이동하면서 무게감이 달라진데다 대외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특성상 자리를 오래 비워두기도 힘들다. 내부적으로도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합병 건의 발언에 수장 선임이 속도를 냈으면 하는 분위기다.

차기 수출입은행장으로는 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행시 29회 동기로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에 국제금융통으로 꼽히는 만큼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평이다. 나이는 유 수석부원장이 1964년생, 최 사장이 1960년생이다.

유 수석부원장은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11월부터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임명됐다.

최 사장은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세계은행(WB) 이사, 국제통화기금(IMF) 이사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KIC로 이동했다.

수출입은행장은 기재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중 은행 가운데서는 허인 국민은행장의 경우 연임이 무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적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데다 노조와의 분쟁도 무난히 수습했다는 평이다. 취임 당시부터 고객과 직원 중심을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연임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실적 등 성과는 좋지만 전례가 없었던 탓이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지난해 말 이미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해 올해는 3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취임 이후 사상 최대 실적에 디지털 부문과 해외진출에서도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연임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지금까지 3년간 행장 자리를 지킨 사례는 없어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도진 기업은행장 역시 연임 사례가 없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와 함께 임기만료를 반 년 이상 앞둔 올 상반기부터 관료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 교체된다면 내부 출신이 연속해서 행장에 선임될 지 외부 인물이 될 지도 관심사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SC제일銀 연 5% 이자 페이코 적금 이벤트

SC제일은행은 오는 24일 간편 금융 플랫폼 페이코(PAYCO)에서 1년제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최고 연 5.0% 상당의 이자와 페이코 포인트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 적금의 금리는 연 1.6%다. 여기에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은 연 1.9%의 페이코 포인트를 추가로 받는다. 그리고 페이코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 1.5%의 페이코 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다. 페이코 서비스의 경우 월 한 번 이상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연 1.0%, 무료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연 0.5%의 페이코 포인트를 각각 익월에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본금리와 페이코 포인트를 모두 더하면 최고 연 5.0%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최고 연 3.4%의 페이코 포인트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홍민영 기자

KEB하나銀 퇴직연금 가입하면 하나머니 제공

KEB하나은행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개인형 IRP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신규 가입 손님을 대상으로 '연풍연가(연금을 풍요롭게, 연금을 가치있게) 통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개인형 IRP,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신규 가입손님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갤럭시폴드, 4970명에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하나머니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첨권은 개인별 최대 50매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종료 후인 12월 현재 정상 계좌 유지 손님들을 대상으로 추첨이 진행된다.

/홍민영 기자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공모전

우리은행은 내달 21일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대학생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주제로 다양한 시각과 참신한 생각을 담아 제작한 UCC 영상을 활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피해의 심각성, 통장양도의 위험성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주제로 대학생 누구나 4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민영 기자 hong93@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 신용카드로 찾으세요

금융꿀팁 200선

#. 직장인 A씨는 택시를 타고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택시에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두고 내려 무척 당황했다. 이때 거래처 직원인 B씨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경우 본인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줬고, A씨는 본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님과 연락이 닿아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 연락처〉

회사명	고객센터 연락처
티머니	1644-1188
이비카드	1644-6001
마이비	1644-6001
한페이시스	1566-1554
DGB유페이	080-427-2342
스마트로	1666-9114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택시에 두고 내린 물품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결혼, 장례, 자동차 구입 등 목돈 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임시한도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택시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고객센터)에 연락해 결제했던 카드번호와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기사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

주유비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충족 여부는 각 카드사의 앱(애플리케이션) 또는 앱카드를 통해 전월 실적 충족 여부와 부족한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는 신용카드는 모바일 앱에 등록한 앱카드를 이용하면 반복해서 카드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한 번만 카드를 등록하면 이후 온라인 쇼핑 시 비밀번호 입력, 지문과 같은 생체인증 등 개별 인증만 하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결혼, 장례, 자동차 구매 등 목돈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될 경우 카드사에 임시 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임시 한도 상향을 신청하면 카드사의 심사 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 등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은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김희주 기자 hj89@

신한금융, 7년 연속 DJSI 월드지수 편입

〈지속가능 경영지수〉

국내 금융그룹 최초 성과
은행산업 부문 세계 6위

신한금융그룹은 미국 다우존스가 발표한 DJSI 월드 지수에 국내 금융그룹으로는 처음으로 7년 연속 편입됐다고 16일 밝혔다. 은행산업 부문에서는 국내 1위, 세계 6위의 순위다.

DJSI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적 성과 뿐 아니라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평가 및 사회책임투자 지표다.

올해 DJSI 월드지수 은행산업 부문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그룹인 산탄데르(스페인), 웨스트팩(호주), BNP 파리바(프랑스) 등 전 세계 25개사가 편입됐으며, 신한금융은 세계 6위로 편입돼 글로벌 금융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신한금융은 ▲책임 있는 성장 ▲사회적 동반관계 형성 ▲미래를 향한 투자 등 3대 지향점을 바탕으로 '2020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UNEP FI 글로벌 행사에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직접 참석해 전 세계 금융산업을 위한 '책임은행원칙(Principle for Responsible Banking)'을 공동 제정 및 발표하는 등 그룹 차원의 중장기 친환경 비전인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DJSI 7년 연속 편입은 그룹의 미션인 금융의 본업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의 실천 노력이 그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고객에게 인정받고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